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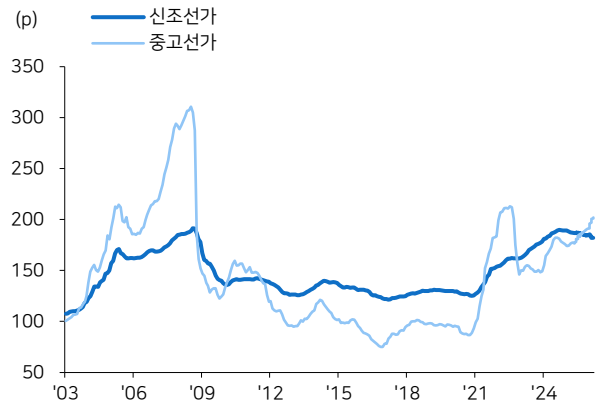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17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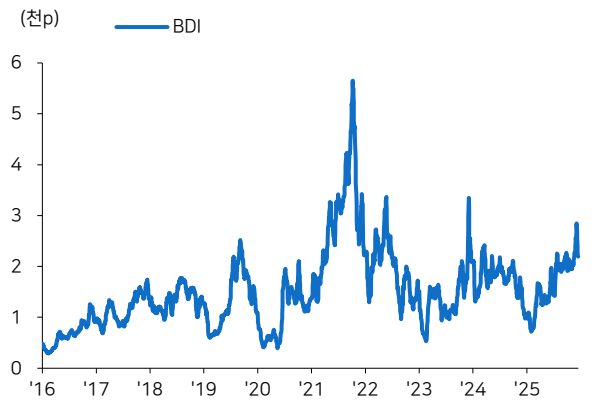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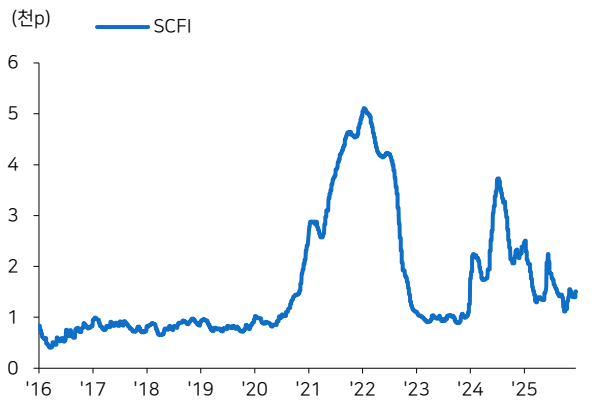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7.0달러 (+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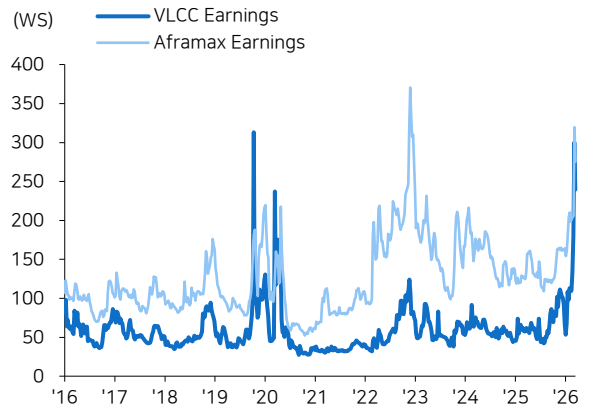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28.0p (+5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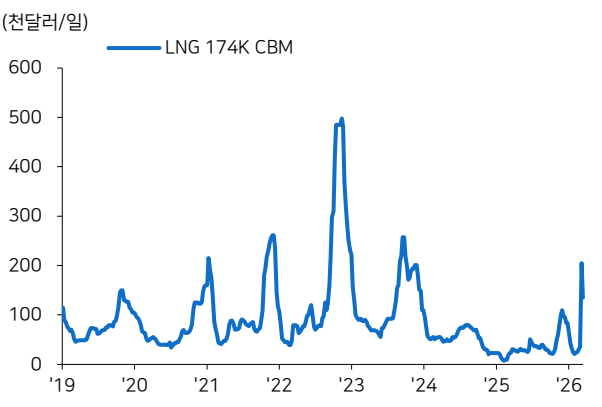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10.4p (+221.2p WoW)



VLCC Spot Rate 239.7WS (-60.3p WoW)



LNG Spot 운임 135.0천달러 (-70.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MM orders 10 newbuildings worth $550m at HD Hyundai (TradeWinds) https://zrr.kr/dq6FSZ

HD현대중공업이 HMM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2,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10척을 약 8,237억 원에 수주하며 2028년 하반기 인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HMM은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와 비용 최적화를 위해 중국과 한국 조선소에 피더선 발주를 지속하며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됨. 동원그룹이 약 68억 달러 규모의 HMM 인수를 재검토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향후 국내 최대 선사의 주인 찾기와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짐.

US ups exports for Venture Global as buyers seek cargoes amid war fallout (TradeWinds) https://zrr.kr/nB1PHI

미 에너지부가 Venture Global의 Plaquemines 플랜트 수출량을 13% 증량 승인하고, 86억 달러 규모의 CP2 LNG 프로젝트 2단계 최종 투자 결정(FID)이 완료되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LNG 공급량의 20%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미국은 RioGrande LNG 확장 승인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두 배 이상 확대하며 아시아와 유럽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해짐.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LNG 도입량을 늘리고 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협상에 착수함에 따라, 미-아시아 간 장거리 노선 물동량 증가와 이에 따른 신규 LNG 운반선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고 알려짐.

HD 현대, '6 조 투자' 인도 타밀나두 조선 클러스터 구체화...포스코 동반 진출 '기대' (더구루) https://zrr.kr/jGyhlv

HD현대가 인도 타밀나두주에 약 40억 달러(약 6조 원)를 투자하여 연간 400만GT 규모의 대형 조선소를 건설하고 메가 조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짐. 인도 해양개발기금(MDF) 및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포스코 등 협력사들과 동반 진출하여 현지 조선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구조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됨. 인도 정부는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해 세부 조율에 나설 계획이며, HD현대 측은 투자비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짐.

중동사태에 조선업 '절단용 가스' 수급 차질...정부 "재고 공급" (연합뉴스) https://zrr.kr/CIFidr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수입이 중단되면서, 선박 철판 가공용 특수 가스인 에틸렌 수급에 차질이 생겨 국내 조선업계의 생산 공정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알려짐.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일부 조선사는 2주 내 재고 소진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긴급 물량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정부는 화학업계의 재고 물량을 우선 배정해 단기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에틸렌 공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삼성중공업, 업계 첫 '로봇 배관 공장' 가동...스풀 제작 자동화 (뉴시스) https://zrr.kr/llquYE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배관 스풀 제작 전 공정을 자동화한 공장인 '파이프 로보팹'을 경남 함안에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알려짐. 이 공장은 비전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여 설계부터 용접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연간 약 10만 개의 배관 스풀을 균일한 품질로 생산하여 공기 단축과 작업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보도됨. 이번 준공은 삼성중공업의 인공지능 · 디지털 · 로봇 전환을 의미하는 '3X' 전략의 핵심 사례로,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 산업 제조 경쟁력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전해짐.

Shell defends LNG strategy amid 54% demand growth forecast by 2040 (Upstream) https://zrr.kr/QWdLvt

Shell이 주주들의 탄소중립 압박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글로벌 LNG 수요가 최소 54%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LNG를 장기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재확인했다고 보도됨. 아시아 시장이 2040년까지 신규 가스 수요의 70%를 주도할 전망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hell은 2050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40년대에도 추가적인 공급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해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가격 변동성 우려와 주주들의 비판이 공존하고 있으나, Shell은 자사 프로젝트의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LNG 판매량을 4~5%씩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